

beginner attains right enlightenment or practice theory of du-wu du-xiu(頓悟頓修). This opinion does not admit the importance of jian-xiu(漸修). In this opinion the role of karma and samsāra are naturally reduced. The other differentiation is that Chinese writing scripture emphasizes the concepts of karma and samsāra. This is different from Chinese Buddhist sects. “*Leng-yan ching*”(楞嚴經) says Chinese transformation of karma and samsāra, “*Fu-mu en-chong ching*”(父母恩重經), emphasizes xiao(孝) in Karma and Samsāra. “*Shi-wang ching*”(十王經) and “*Yu-lan pen ching*”(盂蘭盆經) espouses Chinese transformation of fu-tian(福田) thought.

Key Word

‘*Wu bu-qien lun*’(物不遷論), “*San-bao lun*”(三報論),
du-wu du-xiu(頓悟頓修), “*Leng-yan ching*”(楞嚴經),
xiao(孝), fu-tian(福田) thought

▶ 투고일자 2011.7.20 | 심사일자 2011.8.6 | 게재확정일자 2011.8.8

偽經의 민중교육적 의미* —남북조시대 찬술경전을 중심으로

이자평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 I. 머리말
- II. 보편적 윤리도덕의 구현
- III. 반성과 실천의 신앙 설정
- IV. 실천행을 통한 마음의 增長 유도
- V. 맷음말

*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BK21 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요약문

위경은 인도와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유·도·양가의 비판에서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 찬술된 것으로, 당시 의례의식의 모습이나 찬술 당시의 불교교단의 모습과 인도불교와는 다른 중국불교만의 독자성, 그리고 민중들의 불교신앙과 실천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조시대의 찬술경전으로서 『淨度三昧經』, 『大通方廣經』, 『菩薩瓔珞本業經』을 중심으로, 위경이 갖는 여러 특징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행의 요소들을 통해 민중들에게 어떤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위경이 민중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행위로 강조하는 특징과 실천행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말법시대에 적합한 구복의 인과응보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결코 보편적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五戒 등의 윤리도덕을 강조한다. 인과응보의 지옥관과 내세관 등이 결부되면서 명확한 상별의 윤리도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선의 실천을 이루게 한다.

둘째, 기존의 철학적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 실천적이고 자신의 현

실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신앙을 설정한다. 사회의 불안정에 대한 현실도피를 현실 속에서의 반성과 실천으로 전환한다.

셋째, 실천행의 강조가 단지 기존 불교계에 대한 비판만을 향한 것 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의 실천에서 오는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한다. 다시 말해, 戒를 받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佛性에 기반한 마음의 중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위경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受戒와 持戒에 따른 상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계의 持犯에 얹매이기 보다는 참회를 통한 현실 속에서의 반성과 실천을 불보살의 위신력이라는 신앙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위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과 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실천행으로 마음의 중장을 이루고 종국에는 本性의 발현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위경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첫째로 삶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오계의 실천이라는 적극적인 선의 실천으로 민중들의 눈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마음과 행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발적인 동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마음과 행의 변화에서 오는 공덕은 그 행의 이로움 때문에 다음의 마음과 행을 이어가는 씨앗이 될 것이다. 그것을 현세의 부귀와 지옥 등으로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자신의 행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조금씩 자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위경, 민중, 실천행, 교육, 불성

I. 머리말

위경¹⁾은 인도나 서역 이외의 지역인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찬술된 경전류들을 말한다.²⁾ 특히 중국에서는 인도나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해져 한역된 경전에 반해서 중국인에 의해 찬술된 경전류들을 위경이라 칭하고, 그 둘을 엄격히 구분했다. 전래 경전들의 번역을 통해 성립된 중국불교에서는, 인도찬술경전이 아닌 중국찬술경전을 불보살이 아닌 사람의 망설로 찬술된 경전이라고 평하한 것이다. 그

1)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전은 疑經,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한 경전은 僞經,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疑僞經이라고 한다. 서구에서는 위경에 대해 성서에 편입되지 않은 성전이란 뜻의 Buddhist Apocrypha, 고유의 지역이나 민족에서 발생한 성전인 Indigenous Buddhist Scripture라고 한다. (사이토 류신(齊藤隆信), 「疑僞經과 그 연구의意義」,『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7집, (의산: 원불교문화연구원, 2007), p. 31)

2) 疑僞經에 대해 牧田박사는 中國人撰述經典(찬술 지역에 따른)으로 호칭하고, 直海박사는 民衆經典(민중 보급의 측면)이라고 호칭한다.(牧田諦亮,『疑經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6); 直海玄哲,「疑僞經典から民衆經典へ」,『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卷二, (東京: 大東出版社, 1996))

결과 대부분의 위경들은 대장경에 수록되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³⁾되는 운명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위경은 외부의 폄하와 스스로의 도태라는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그 수량이 증가해 왔다.⁴⁾ 이는 중국불교의 전개과정에서 ‘經’이라는 권위를 빌려서라도 위경을 찬술하게 된 필요성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며,⁵⁾ 번역경전만으로는 불충분했음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돌려 말하면, 위경이 번역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의례의식의 모습이나 찬술 당시의 불교교단의 모습과 인도불교와는 다른 중국불교만의 독자성, 그리고 민중들의 불교신앙과 실천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⁶⁾는 것이다. 인도와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유·도 양가의 비판에서 불교를 보호하기 위한 위경의 찬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위경의 연구는 1900년 돈황의 석실 안에 수장되어 있던 佛敍寫本들의 발견이 계기가 된다. 사본들에 대해 1927년 오오노 호우도의 「三階敍の研究」⁷⁾와 1930년 모치즈키 신코우의『淨土敍の起源及發

3) 위경의 도태에 대해서 사이토(齊藤)박사는 편찬자들에 의한 배척, 대장경에 편입되지 못한 것, 내용의 저속함, 속강이나 변문의 등장 등을 열거하고 있다.(사이토 류신(齊藤隆信), 앞의 글, p. 33)

4) 515년 僧祐의『出三藏記集』에서 46부 56권의 위경의 수는 宋 대장경의 조판과 관계된 智昇의『開元釋敍錄』에서 406부 1074권으로 늘고 있다.

5) 위경의 찬술배경에 대해, 牧田박사는 1. 통치자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것, 2. 통치자의 정치를 비판하기 위한 것, 3. 중국의 전통적인 윤리사상에 부합하기 위한 것, 4. 특정한 교의에 대한 신앙을 고취하기 위한 것, 5. 혼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 6. 질병의 치료, 기복 등의 미신을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牧田諦亮, 앞의 책, pp. 41-84)

6) 사이토 류신(齊藤隆信), 앞의 글, p. 37

7) 삼계교의 성립에 영향을 끼친 말법사상이 담긴『상법결의경』 등을 소개하고 있다.(大野法道,「三階敍の研究」,『宗敍研究』新四卷 5號, (東京: 日本宗敍學會, 1927), pp.

達』⁸⁾ 등을 시작으로 위경의 현대적 연구 성과가 나타난다. 대영박물관의 古寫經을 직접 조사한 『三階敎之研究』⁹⁾와 銀雀山漢簡에서 출토된 경전들을 연구한 『疑經研究』¹⁰⁾가 나타난다. 이후 위경의 연구는 일본 사찰 소장의 위경에 대한 연구¹¹⁾와 宋代·明代의 위경에 대한 연구,¹²⁾ 그리고 다양한 경전들 개개의 연구로 발전하게 된다.¹³⁾ 한국에서의 연구는 위경의 개론적인 연구¹⁴⁾와 한국불교사에서 위경의 영

142-150)

8) 「支那撰述의 疑僞經」이라는 章에서 『인왕반야마라밀경』, 『법망경』, 『보살영락본업경』, 『점찰선악업보경』, 『대불정수능엄경』,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등의 위경들을 논하고 있다.(望月信亭, 『淨土教の起源及發達』, (東京: 山喜房佛書林, 1930)). 이후 연구를 발전시켜 『불교경전성립사론』의 후편에 「이경 및 의위경론의 연구」를 두고, 1. 도교 및 俗信관계의 의위경, 2. 護國과 大乘戒 및 菩薩修道의 階位관계의 의위경, 3. 어래장 및 밀교관계의 의위경, 4. 馬鳴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대승기신론, 5. 마명·용수 등에게 가탁된 여러 論에 대해 논한다.(모치즈키 신코(望月信亭), 『佛教經典成立의 研究』, 김진열 역, (서울: 불교시대사, 1995))

9) 대영박물관의 고사경을 직접 조사한 경전들은 이미 대장장의 疑似部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었다.(矢吹慶輝, 『三階敎之研究』, (東京: 岩波書店, 1973))

10) 위경의 찬술배경을 통해 위경을 분류하고, 『관세음삼매경』, 『淨度三昧經』, 『大通方廣經』, 『要行捨身經』 등의 銀雀山漢簡을 문헌을 논하고 있다.(牧田諦亮, 앞의 책)

11) 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全六卷, (東京: 大東出版社, 1996)

12) 『金剛峻經』, 『慈仁問八十種好經』, 『佛性海藏經』, 『三階佛法』 등의 기초적 연구를 논한다.(木村清孝編, 『疑僞佛典の綜合的研究』, (東京: 東京大學 基盤研究의 報告書, 1999))

13) 木村清孝, 「像法決疑經의 思想史的性格」, 『南都佛教』33, (東京: 東大寺圖書館內南都佛教研究會, 1974); 木村清孝, 「七寺本·僞經『大通方廣經』卷中の 價値」, 『宗教研究』67 (東京: 東京大學 文學部 宗教學研究室內 日本宗教學會, 1994); 坂上雅翁, 「淨土經典としての『占察經』について」, 『宗教研究』58, (東京: 日本宗教學會, 1985); 桐谷征一, 「僞經高王觀世音經의 텍스트と信仰」, 『法華文化研究』16, (東京: 立正大學 法華經文化研究所, 1990); 鈴木裕美, 「疑經『決罪福經』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46, (東京: 印度學佛教學研究學會, 1997) 등

14) 장예순(계환), 「중국찬술의 위경연구」『불교학보』 제33호,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6); 김진무, 「중국불교의 위경제작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평론』 제4호, (서울: 불교평론사, 2002); 元永常, 「南北朝時代의 疑僞經にあける末法思想の形成」, 『印度學佛教學研究』51, (東京: 印度學佛教學研究學會, 2002); 사이토 류신(齊

향 등에 대한 연구¹⁵⁾들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들은 위경을 불교사 속에서 찬술배경과 내용 성립 등을 위주로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경 연구서인 『疑經研究』와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 등에서의 연구 방법을 보면, 위경에 대한 자료적 접근과 불교사 내부에서의 史的 접근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위경을 분류하고 분류된 경전들의 특색을 찾는 연구를 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경을 분류하고 그 특색을 찾는 연구는 위경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찬술자들의 찬술의도를 밝히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¹⁶⁾ 바로 위경의 내부에서 적용되는 '실천행'의 강조라는 민중경전의 측면을 살피지 못하고, 실천행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한 구명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경 특히 남북조시대 찬술경전으로서 『淨度三昧經』,¹⁷⁾ 『大通方廣懺悔滅罪莊嚴成佛經』(이하 『大通方廣經』), 『菩薩

藤隆信), 「疑僞經과 그 연구의 意義」,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7호, (의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등

15) 남동신, 「조선후기 불교계 동향과 『상법멸의경』의 성립」, 『한국사연구』 제113호, (서울: 한국사연구회, 2001); 박용진, 「고려중기 인왕경신앙과 그 의의」, 『한국중세사연구』 제14호, (서울: 한국중세사학회, 2003); 남동신, 「여말선조(麗末鮮初)의 위경(僞經)연구」, 『한국사상사학』 제24호, (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05); 박미선, 「『占察經』의 성립과 그 사상」, 『실학사상연구』 Vol.32, (서울: 역사실학회, 2007); 최연식, 「『金匱要略』의 성격과 연구현황」, 『동아시아 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견』, (서울: 도서출판씨아이알, 2010) 등

16) 牧田ばさんは 朝鮮時代 찬술경전들(서민경전)이 일상 유통 생활의 실천을 불도를 실천하는 최대의 교설로 보고 있으며, 直海박사는 민간신앙을 수용하여 민중의 염원을 들어주는 교설이라고 한다. (牧田諦亮, 앞의 책, p. 143; 直海玄哲, 앞의 논문, p. 897)

17) 『淨度三昧經』은 『卍屬藏經』 권1(no.15)에 pp.367-371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逸失本인 것으로 총3권 중의 제1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본 경에 대해 마키타 타이료(牧田諦亮)는 銀雀山漢簡을 소개하였지만, 이도 제1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오치아이 토시노리(落合俊典)가 일본의 사찰의 중요 서적

瓔珞本業經』등의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일상생활의 실천행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통해 교육적 의미¹⁸⁾를 고찰하고자 한다. 남북조시대의 위경은 末法思想을 비롯한 당시 사문들의 폐해에 대한 반성¹⁹⁾을 기하기도 하며 병을 낫게 하고 복을 구하려는(治病求福) 의미를 담는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대통방광경』은 당시 유행하던 참회문 중에 유일한 위경으로 그 내용은 불보살의 명호를 나열하여 독송하는 공덕을 말하고, 참회의 방법 등을 설명한다. 『정도삼매경』은 부귀와 장수를 위한 十善과 보시, 그리고 참회의 방법을一心의 토대 위에서 설명한다. 『보살영락본업경』은 불성의 淨心을 바탕으로 보살의 본업이라는 십선(戒)과 서원을 중시하여 戒의 持犯을 떠난 십선의 실천을 통한 마음의 중장(瓔珞)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위경들은 주로 일심, 불성 등의 교리를 들고 있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참회와 독경을 통한 감응과 부귀와 장수

들 중에서 나머지 제2, 제3권을 발견하고 이를 전6권의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 중에 제2권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는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를 참고로 글을 전개한다.

18) 최연식은 『금장요집경』에 대한 연구에서 “순수하게 일반 대중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 경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예화들을 모아 일반대중에게 불교 윤리를 쉽게 전하고 이를 생활에서 곧바로 실천하게 하였던 것”(최연식, 「금장요집경」의 성격과 연구현황, 『동아시아 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견』, (서울: 도서출판씨아이알, 2010), p. 287)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 맞추어서 교화라는 말보다 교육이라는 말이 위경 전반에서 두루 강조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이라는 면을 더욱 잘 드러낼 것으로 여기고, 본 연구의 제명을 교육적 의미로 하였다.

19) 대표적으로 『像法決疑經』이 있다. 이는 기존의 『화엄경』, 『유마경』 등의 내용들을 재구성하여서 말법시대의 사문과 민중들에게 필요한 참회와 반성 등을 설명한다.(矢吹慶輝, 『三階教之研究』, (東京: 岩波書店, 1973), 참조.)

를 위한 십선,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선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천행의 강조라는 측면은 진경의 교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민중들에게 당위를 말하는 것이며, 당위의 실천을 통한 윤리적·교육적 선의 인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真經과는 구별되는 위경이 갖는 분류 중의 하나인 민중경전²⁰⁾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분류만이 아니라 위경 전체에 공통되게 포함되는 특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혼란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민중들에게²¹⁾ 현세의 부귀(장수)를 위한 참회와 십선 등의 실천이 갖는 삶의 개선과 다음 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부여라는 교육적 의미를 마음의 중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20) 기존의 연구에서는 위경에 대해 서민경전이라는 말과 민중경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사전에서 서민은 신분적 특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 사람, 혹은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민중은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을 뜻한다. 두 의미가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민중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위경의 대상이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구성원의 의미를 조금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경에서는 실천을 통한 응보로서 현세의 부귀와 함께 지옥, 내세, 천신, 수명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경연구에서도 초기 서민경전이라는 말에서 민중경전이라는 말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21) 북위시대 중·후기 불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를 빈번한 자연재해와 반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들고 있다. 그 예로 당시 호적의 이탈이 효명제 때 49만 여 가구에서 효장제 때 33만 여 가구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영석, 『南北朝佛教史』, (서울: 혜안, 2010), p. 252)

II. 보편적 윤리도덕의 구현

불교는 관념의 유희 또는 희론을 배척하는 실천지향적인 종교이다. 부처님의 언설들은 모두 닦음(修, 실천)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는 법을 듣고(聞), 사유하여(思)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남북조시대의 민중들은 佛性과 같은 佛法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조시대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의 사색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행동 하나하나였을 것이다.

위경은 이러한 민중의 현실에 대해 재가자들이 받게 되는 五戒(十善)²²⁾를 기반으로 보편적인 윤리도덕의 생활규범을 강조하게 된다.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 곳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를 통한 보편적인 윤리도덕의 실천은 민중들에게 적절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치하다 박사의 말처럼 “인간의 공동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나 지켜야 할 덕목이 있듯이, 누구라도 이를 제시할 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²³⁾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오계 등을 기반으로 위경에서 강조하는 윤리도덕과 그 응보사상을 설명한다.

오계에 대해 『淨度三昧經』 卷二에서는 천상의 五官은 선에 대한

賞을 주관하고, 지옥의 오관은 五道의 귀신왕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오관²⁴⁾과 오계를 배대하고 있다.

각기 스스로 때가 있으니, 죽이기를 좋아하고 자비가 없어 마음과 입으로 악을 행하면 仙官에게 기록되며, 명(命)은 봄에 있다. 도적질을 좋아하고 탐하고 구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水官에게 기록되며, 명(命)은 겨울에 있다. 음탕하기를 좋아하면 鐵官에게 기록되는데, 媚鬼가 그 부정을 먹고 아울러 심혈을 마시기 때문에 심장, 간, 신장, 머리, 눈에 병이 있게 되며, 명(命)은 가을에 있다. 술을 좋아하여 취하고 어지러우며, 仁義를 행하지 않고, 禮教를 폐하면 天官에게 기록되며, 명(命)은 여름에 있다. 망언과 양설, 악구를 좋아하여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전하고 성스러운 도를 비방하면 土官에게 기록되며, 명(命)은 각 계절에 있다.²⁵⁾

이는 오계와 五常을 하나로 설명하는 『提謂波利經』(이하 『提謂經』)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²⁶⁾ 오계와 배대된 오관의 이름

22) 섭선도에 대해서 勝又박사는 선한 행위로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 평범한 진실을 이용하여 자기반성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준의 업사상을 받아들여 윤리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편적인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원점으로 돌아가 계율의 참 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던 의도라고 설명한다. (勝又俊教, 「大乘佛教の倫理」 -大乘戒の中心として-, 講座『佛教思想』第3卷, (東京: 理想社, 1982), pp.70-74)

23) 道端良秀, 『中國佛教思想史の研究』, (東京: 平樂寺書店, 1979), p. 9

24) “무엇을 일러 五官이라 하는가? 첫째는 仙官으로 禁殺을 주관하고, 둘째는 水官으로 禁盜를 주관하고, 셋째는 鐵官으로 禁婬을 주관하고, 넷째는 土官으로 禁兩舌을 주관하고, 다섯째는 天官으로 禁飲酒를 주관한다.” (『淨度三昧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 卷二, (東京: 大東出版社, 1996), p. 43), “何謂五官 一者仙官主禁殺 二者水官主禁盜 三者鐵官主禁婬 四者土官主禁兩舌 五者天官主禁飲酒.”)

25) 『淨度三昧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위의 책, p. 44), “各自有時 好殺無慈心口行惡 為仙官所錄命在春 好盜貪求無厭劫人 為水官所錄命在冬 好婬欲為鐵官所錄 媚鬼食其不淨並飲心血 痘在心肝腎頭目命在秋 好酒醉亂仁義不行禮教廢 為天官所錄命在夏 好妄言兩舌惡口 傳舌讒人誹謗聖道 為土官所錄命在季月.”

26) 『提謂經』에서의 오계의 배대에 대해서는 『仁王護國般若經疏』(『大正藏』 33, 260c), 참조.

과 계절 때문이다. 이는 『제위경』에서 오상과의 연계를 강조한 것과 『淨度三昧經』에서 계절을 강조한 것을 제외하면, 이 두 경전의 오계의 설명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²⁷⁾

두 경전의 공통점은 민중들에게 戒라는 것이 악을 짓지 않고 선을 실천(止惡勸善)하려는 것이면서, 五行(木火土金水)²⁸⁾이라는 세간(계절)의 변화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며, 내 몸의 五臟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계가 단지 지켜야 할 당위의 것이 아니라, 세간의 변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선의 ‘자기 실천²⁹⁾’임을 강조한다. 바로 자신이 지은 것은 자신이 얻는다(自作自得)는 점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³⁰⁾ 또한 유교의 仁과 禮와 같은 고원한 이상들을 현실 속에서의 행위 하나하나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만들면서, 높고 낮음의 개념을

27) 『提謂經』과 『淨度三昧經』의 五戒觀 비교

	『提謂經』	『淨度三昧經』
禁殺	東方, 木, 仁, 養生	仙官, 春(東方, 木)
禁盜	北方, 水, 智	水官, 冬(北方, 水)
禁婬	西方, 金, 義	鐵官, 秋(西方, 金)
禁兩舌	中央, 土, 信	土官, 季月(中央(각 계절의 시이), 土)
禁飲酒	南方, 火, 禮, 防於失	天官, 夏(南方, 火)

28) 불교의 유교와 도교의 섭합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남북조시대 왕필에 의한 오행사상의 성립은 삼교병존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행사상을 성립하면서 왕필은 “하늘은 五行의 物을 내되, 無를 用으로 삼는다.”라고 하며, 五行이 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常이라고 하며, 이러한 常을 아는 것이 유·도교의 明이라고 한다. 오행을 통해 유교와 도교의 섭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王弼, 『老子指略』, 임채우 옮김, (서울: 한길사, 2005), 참조)

29) “계를 예법하게 봉행하면,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스스로 복덕을 얻으며 건너고 도를 얻는다. 부처님이 실제로 중생을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스스로 건널 뿐이다.” (『淨度三昧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앞의 책, p. 85), “戒如法奉行 依佛慧 自得福德得度得道 佛實不度人 人自度耳.”)

30) 『淨度三昧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앞의 책, p. 53), “是自作自得 不作是即無對亦無所得 一切皆由因緣生.”

벗어난 평등하고 보편적인 윤리도덕으로 만든다.

오계를 통해 보편적 윤리도덕을 설정하는 면과 함께 위경에서는 응보의 결과를 강조한다. 특히 사후의 내세와 지옥에 대한 설명은 민중들에게 오계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 주는 것이다.

죄와 복의 과보는 하나하나도 잊지 않는다. 한 생각은 한 몸을 받으니, 선한 생각을 하면 천상과 사람의 몸을 받고 악한 생각을 하면 삼악도의 몸을 받는다. 백 가지의 생각은 백 가지의 몸을 받고, 천 가지의 생각은 천 가지의 몸을 받는다. 하루 낮 하루 밤에 生死根을 심으면 뒤에 반드시 팔여오천만의 잡다한 몸을 받게 된다.³¹⁾

선을 선법으로 삼으면 선을 닦는 것이 도량이 되고, 선행이 牛車가 되어 사람들을 싣고 福堂에 들어간다. 악을 악법으로 삼으면 악행이 서로 엉혀, 태어나서는 계를 받지 못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다.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는(三歸五戒) 수레는 산 속의 나무로 만드는 것이다.³²⁾

생각과 행동으로 내세와 지옥의 응보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루의 낮과 밤을 살아가면서 팔여오천만의 잡다한 생각을 한다고 설명하고, 이 수많은 상념들을 선으로 이끌어 선법으로 삼는다면

31) 『淨度三昧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앞의 책, p. 60), “罪福之報 一一不失 一念受一身 善念受天上人中身 惡念受三惡道身 百念受百身 千念受千身 一日一夜 種生死根 後當受八億五千萬雜類之身.”

32) 『妙好寶車經』(『大正藏』85, 1334a), “以善為善法 修善是道場 善行作車牛 載人入福堂 以惡為惡法 惡行相縛束 生時不受戒 死則入地獄 三歸五戒車 非是山中木.”

행하는 모든 곳이 도량이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복당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상념들을 악으로 이끌어 악법으로 삼는다면 인간의 몸을 받아도 계를 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응보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생각의 응보와 함께 계를 지키고 행하는 응보를 설명한 것이다.

위경에서는 오계의 응보에 대해 천신과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나의 계를 완전히 지키는 자는 하늘이 다섯 천신으로 하여금 그를 수호하게 한다. 오계를 갖추어 지키는 자는 25 천신으로 하여금 그 집을 도와서 번영하게 하고, 위로는 六天에 이르게 하며, 무릇 150 천신들이 있어서 차례로 옹호한다.³³⁾

일체의 중생은 광겁 아래로 무명에 쌓여 있어서 삼계의 뇌옥에서 생사 유전하고 뜻 두려움만을 모아서 육도에 왕래하여 귀의할 곳이 없다. 이 때문에 命을 천신에게 귀의하고 몸을 외도에게 던져 스스로 수족을 묶고 生을 해롭게 하고는 命을 구한다.³⁴⁾

자신의 보편적 윤리도덕의 행에 대한 자작자득의 응보라는 측면과 함께 천신의 옹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물론 천신에 대한 귀의 등의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민중들의 입장에는 오계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두려움에 대해 천신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33) 『淨度三昧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앞의 책, p. 53), “持一戒完者 天令五神護之 持五戒具者 令廿五神營救門戶 上至六天凡有百五十神番代擁護。”

34) 『大通方廣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앞의 책, p. 355), “一切衆生 曠劫以來 無明所蔽三界牢獄生死流轉 衆怖交集 六道往來無歸依處 是故 歸命天神投身外道 自縛手足害生求命。”

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위경에 포함된 유교와 도교 등의 모습은 불교 내부에서는 외래종교인 불교의 중국에서의 입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중의 입장에서는 계의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고원한 사상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히게 하고 행동 하나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부유하게 태어나는 六事³⁵⁾와 『清淨法行經』에서의 二十事³⁶⁾의 설정 등은 모두 현재의 적극적인 선의 실천을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 죄를 멀하며 복덕을 쌓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II. 반성과 실천의 신앙 설정

인도불교와 같이 중국불교에 있어서 참회의 문제는 중요한 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道宣의 『廣弘明集』(664)에서 보이는 陳의 文帝 代의 懲文들이다.³⁷⁾ 그 중에 세 번째로 있는 『大通方廣懲文』을 통해 당시 중국불교의례에 있어서 위경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³⁸⁾ 아래에서는 참회의 실천이 주는 의미를 참회의 방법을 통해 고찰한다.

35) “六事는 좋은 스승의 교설을 따르고, 기쁘게 보시하고, 九齊와 五戒를 지켜서 범하지 않고, 인욕을 행하며, 일체행에 있어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삼보에게 예배한다.” 『淨度三昧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앞의 책, p. 66)

36) 『清淨法行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앞의 책, pp. 18–19)

37) 陳文帝 代의 懲文 : 1.妙法蓮華經懲文, 2.金光明懲文, 3.大通方廣懲文, 4.虛空藏菩薩懲文, 5.方等陀羅尼齋懲文, 6.藥師齋懲文, 7.娑羅齋懲文, 8.無礙會捨身懲文. (『廣弘明集』(『大正藏』52, 333–335))

38) 牧田諦亮, 앞의 책, p. 297

참회, 반성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민중들이 오계라는 보편적 윤리도덕을 행함에 있어서 과거의 죄를 면하고, 犯戒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계의 실천이 중요한 만큼, 참회 또한 중요한 면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참회의 방법이 다른 위경들과 공통되고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도삼매경』의 十事이다.

오계를 받아 따르고, 九齊日과 八王日을 구족하고 봉행하며, 十事를 지키고 다스리는 뜻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무엇을 일러 열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 齊日에는 마땅히 사찰로 가서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탑을 돌고 삼보에게 예배해야 한다. 둘째 마땅히 스승을 따라서 스승의 교설을 따르며, 그것을 지니고 받아야 한다. 셋째 오계를 견고히 지녀야 한다. 넷째 오로지 마음에 도를 생각한다. 다섯째 모든 정욕을 닫는다. 여섯째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하며 스승의 은혜의 중함을 생각한다. 일곱째 처자와 집과 재보를 생각하지 않는다. 여덟째 허망되게 다니지 않는다. 아홉째 죄를 깊이 자책한다. 열째 모든 다른 사람들의 惡을 생각하지 않고 보시하여 공덕을 세운다.³⁹⁾

평소에 오계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齊日⁴⁰⁾이 되면

39) 『淨度三昧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앞의 책, p. 53), “受五戒 具足奉行九齊八王之日 守治十事 立志令堅 何謂爲十一者 齊日當詣佛寺燒香散花遶塔禮拜三尊 二者當從師受齊如法持之隨師教令 三者堅持五戒 四者專心念道 五者開諸情欲 六者念佛念慧念師恩重 七者不得念妻子居家財寶 八者不得妄行來 九者深自責本罪 十者不得念一切人惡當施立功德。”

40) 齊日의 설정에 대해 塚本 박사는 인도세속신앙과 중국세속신앙의 섭합이라고 추측하면서, 한해의 三長齊月과 달의 육제일, 년의 팔왕일등은 말하자면 齊戒의 주간 동안에 善을 닦기 위해 불교신자의 집회와 결합을 한 것이라고 한다. (塚本善隆, 『北朝佛教史

오계를 더욱 강조하여 지키고 자신의 해태와 방일로 인해 지키지 못한 죄업을 스스로 대중 앞에 드러내고 고백(發露懺悔)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회의 과정을 설명한 것, 즉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오로지 부처님(三寶)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고 보시를 행한다는 것이 十事의 내용이다. 여기서 참회의 완성을 위해 보시를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몸은 마치 화병과 같다. 화병의 겉은 다섯 가지 무늬로 꾸며져 있지만 속은 腫血, 뚝, 오줌,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길이 생사 윤회하는 것이다.……사람은 六情이 소멸되고 사람의 형상이 소멸하면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음을 살펴보면 마땅히 보시를 행하고 戒라는 神水로 물을 대어서 오음의 허물을 제거해야 한다. 뜻을 세우고 생을 구하며 죽음을 없애고 근심을 멀하게 하니, 지옥의 문이 닫히고 고통의 근본이 단절되며 泥洹을 문득 얻는다.⁴¹⁾

몸을 화병으로 비유하여 부정함을 보이고, 민중들에게 몸에 집착하지 말고 계를 지키고 보시를 행하라고 한다. 보시와 계의 적극적인 선의 실천행이 현재의 공덕을 넘어서서 지난 숙세의 과오까지 제거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시와 계를 통한 참회는 오음의 허물을 사

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1974), pp. 217–220)

41) 『淨度三昧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앞의 책, p. 75), “如畫瓶 外以五采鑄之 內盛 腫血屎尿不淨 愚者保之長處生死 …… 不覺知人爲六情所消滅人形死不得生 諦觀如是 當行布施以戒神水澆除五陰之垢 建志求生除死滅憂 關閉獄戶 斷絕苦 本便得泥洹。”

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열반을 얻게 하는 것으로 민중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참회라는 이름으로 오계라는 적극적인 선의 실천과 齊日의 적극적인 자기반성과 함께 보시행이라는 실천행을 거듭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반성과 보시의 실천은 나 이외의 남을 알게 함으로써 실천자의 삶을 개선되게 하고, 자신이 가진 선의 발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회의 방법에는 위의 같이 일정하게 정해진 제일을 중심으로 자신의 행위 등의 참회를 실천하는 것과 함께, 신앙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七日七夜)동안 깊은 밤로 참회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다.

방을 깨끗이 하고, 좋은 幢蓋로 실내를 장엄한다. 먼저 좋은 향을 사르고, 그런 뒤에 부처님을 청한다. 향수로 목욕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는 것에 많고 적음을 묻지 않는다……一心으로 난잡함을 버리고 正憶, 正念하여一心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⁴²⁾

7일 밤 7일 낮으로 눕지 않고 하루에 세 번 이 경을 독송하며, 하루 밤 하루 낮으로 여섯 번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예배하고 참회하면서 이 경 안의 모든 불보살을 칭명한다.⁴³⁾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물론 오로지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42)『大通方廣經』(『大正藏』85, 1353a), “空淨之處淨治一室 香涅塗地 以好幡蓋莊嚴其內 先燒好香 然後請佛 不問多少香水洗浴著淨衣服 ……一心除亂 正憶正念一心念佛。”

43)『大通方廣經』(『大正藏』85, 1353a), “七日七夜不得眠臥 一日三時讀誦是經 日夜六時 燒香供養禮拜懺悔 稱是經中諸佛菩薩十二部經。”

칭념하며, 매일『大通方廣經』을 삼백 번 독송한다.⁴⁴⁾ 불보살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참회하고 경전을 독송하며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면서 부처님의 감응을 이끌어내는 실천행인 것이다.

『大通方廣經』이 불보살의 명호를 칭념하며 반성과 실천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라면,『관세음삼매경』⁴⁵⁾은 관음신앙을 통해 반성과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천행의 방법은 심신을 정갈히 하고서 7일 낮과 7일 밤 동안 단좌하여 다른 생각이 없이 경전을 독송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일하지 않는 실천을 행하는 것이다.⁴⁶⁾ 실천행의 강조라는 축면과 그 방법에 있어서『대통방광경』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위경을 포함한 관세음신앙과는 달리, 관세음보살의 공덕이익만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⁴⁷⁾ 민중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과 그에 대한 감응⁴⁸⁾을 강조한다.⁴⁹⁾ 또한 수명을 더하

44) “한번 읽을 때마다, 백편을 읽고 나서 오른쪽으로 일곱 번 돈다. 이와 같이 칠일 간 하루에 세 번 읽는다.”(『大通方廣經』(『大正藏』85, 1350a))

45)『관세음삼매경』은『大正藏』에 수록되지 않아서 마키타 타이료(牧田諦亮)가 조사한 교토박물관 소장본만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46)『觀世音三昧經』(牧田諦亮, 앞의 책, p. 233), “應淨房舍中 懸諸幡蓋 散花燒香 端坐七日 念無異想 詩此觀世音三昧經。”

47)『高王觀世音經』(『大正藏』85, 1425b), 참조.

48) 1일은 전단훈육향을 보이고, 2일은 한 밤에 大光明을 보이며, 3일은 큰 마차와 같은 蓮花를 보이고, 4일은 天人을 보이며, 5일은 스스로 몸을 드러내어 과거의 생을 보게 하고, 6일은 天官에서의 보살의 설법을 보이며, 7일은 관세음보살이 응현하여 행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모든 번뇌와 무명을 사라지게 한다.(牧田諦亮, 앞의 책, p. 234)

49) 이와 같은 실천 신앙의 모습은 다른 위경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妙好寶車經』에서는 “齊日에 三尊의 앞에서 밤로 참회하여 스스로 과오를 벗어나는 사람은 죄가 멀하고 복이 생한다.”고 한다. 또한『勸善經』에서는 “매일 아미타불을 일천 번 넘하는 사람은 입으로 악을 끊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리고『三廚經』에서는 “항상 삼보에 예배하기를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하게 항상 넘하기를 끊이지 않고, 스승과 부모와 친족을 봉양하며, 능히 육바라밀을 배워 身命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여 늘린다(增壽益算)고 하여 중국전통의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계를 지키고 참회하는 자의 수명이 늘어난다⁵⁰⁾고 한다.

IV. 실천행을 통한 마음의 增長 유통

이상의 논의에서 논자는 위경이 갖는 실천행에 대해, 철학적 사유가 아닌 실천행을 통해 악을 그치고 선을 편하며, 세간의 변화원리에 자연히 스스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참회로 불보살의 위신력에 스스로 감응하려는 신앙의 실천이라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위경이 두 가지 실천행을 강조하는 이유를 또 다른 위경인 『菩薩瓔珞本業經』(이하 『本業經』)을 통해 고찰한다.

『본업경』은 주지하다시피 梵網戒 경전류로, 淨心에 기반한 계체의 설정을 통해 계를 받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천행에 따른 마음의 중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 경은 기존의 『화엄경』을 위시한 그 별행경인 『보살본업경』 등의 내용을 통해 찬술된 경전이다. 보살의 본업이라는 믿음을 통한 서원을 세우고 (十善)계를 지켜나가는 것 자체를 보살의 계위(瓔珞)로 설정하는 등, 화엄의 보리심 등을 바탕으로 난해한 해설이 아닌 현실적 실천이라는 면을 강조한 경전

50) 增壽益算의 예는 『佛說延壽命經』과 같이 경전의 독송으로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과 『 정도삼매경 』 등과 같이 계법을 잘 지킬 때 천신의 보호를 받고 수명이 늘어나며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있다. 증수의 산은 중국 민중들의 도교적 신앙을 불교로 섭합한 것이다. (『佛說延壽命經』(『大正藏』 85, 1404); 『淨度三昧經』(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앞의 책, p. 53))

이라고 할 수 있다.

『본업경』에는 독특한 心無盡戒라는 계체를 설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체 보살의 凡聖戒는 모두 마음을 體로 삼는다. 이 때문에 마음이 다하면 계도 또한 다하지만, 마음이 다하지 않으므로 계도 또한 다하는 일이 없다. 육도의 중생들이 계를 받아 얻음에 있어서, 단지 말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계를 얻어 잊지 않게 되는 것이다.⁵¹⁾

여기서는 계체를 다함이 없는 마음에 두고 있다. 다함이 없는 마음은 곧 청정한 마음(佛性)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의 영역을 청정한 마음의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무진한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계의 持犯⁵²⁾이나 戒師⁵³⁾의 문제보다는, 계를 받는 문제와 계를 행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계를 행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三受門은 다음과 같다.

불자여, 지금 모든 보살들을 위해 일체 계의 근본을 결합하니 소위 三受門이다. 摄善法戒는 소위 팔만사천의 법문을 말하고, 摄衆生戒는 소위

51)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 24, 1021b), “一切菩薩凡聖戒盡心為體是故心亦盡戒亦盡心無盡故戒亦無盡六道眾生受得戒 但解語得戒不失。”

52) “법하는 일이 있어도 戒를 받은 이는 보살이라 하고, 범하는 일이 없어도 戒를 받지 않은 이는 外道라 한다.”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 24, 1021b), “是故應受 有而犯者勝無不犯 有犯名菩薩 無犯名外道。”)

53) “戒師는 夫婦와 六親이 서로 스승이 되어 戒를 줄 수 있다.”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 24, 1021b), “其師者 夫婦六親得互為師授.”)

慈悲喜捨로 교화가 일체중생들에게 미쳐서 모두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이
다. 摄律儀戒는 소위 십바라이를 말한다.⁵⁴⁾

삼수문은 기존의 삼취정계의 섭율의계를 적극적인 선의 실천을 강조하는 十戒(十善道)로 바꾸고, 섭선법계를 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팔만사천의 법문으로 바꾸고 있으며, 섭중생계를 자비회사의 四無量心으로 바꾸고 있다. 삼수문이라는 변화는 심무진계의 특성을 강조하여 실천지향적인 계행을 성립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삼수문은 수계를 통하여 무진한 마음에 계체를 형성시킨 보살이 세간 속에서 팔만사천의 법문에 따라 열 가지 적극적인 선의 실천을 기반으로 일체의 중생들에게 안락을 주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동(持戒)을 말하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동은 공덕이라는 마음의 중장을 형성하게 된다.

法門은 소위 十信心이다. 이는 일체행의 근본이다. 이 때문에 十信心 중의 하나의 信心에 열 가지의 신심이 있어서 백법명문이 된다. 이 백법의 밝은 마음을 따라 다시 하나의 마음에 백 가지의 마음이 있어서 천법명문이 된다. 이 천법의 밝은 마음을 따라 다시 하나의 마음에 천 가지의 마음이 있어서 만법명문이 된다. 이와 같이 무량한 明門으로 중장하여 높은 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明明法門이 된다. 백만 아승기 공덕과 일

54)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24, 1020b), “佛子 今為諸菩薩結一切戒根本 所謂三受門 摄善法戒 所謂八萬四千法門 摄眾生戒 所謂慈悲喜捨化及一切眾生皆得安樂 摄律儀戒 所謂十波羅夷。”

55) 참고, 「『菩薩瓔珞本業經』의 菩薩思想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 pp. 40-41

체행은 다 이 明門에 들어간다.⁵⁶⁾

信心을 통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일체(善功德)행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업경』에서 신심은 보살계위의 52위 가운데 信位의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戒와 서원이 그 주를 이룬다. 신심의 행, 즉 계와 서원을 신위에서의 마음으로 설정하면서, 더 나아가 마음의 하나하나의 문이 행위를 통해 중장해 가는 모습으로 보살행 전체에서의 본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삼수문을 통한 하나의 행동이 十門을 이루고 十門이 다시 百門을 이루는 등으로 행에 따른 공덕의 중장을 계위의 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위 戒와 서원이라는 보살의 본업이라는 것이 52계위 중 십신위를 시작으로 일체행을 통한 공덕의 중장을 이루게 하고 종국에는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와 보시의 실천을 泥洹에 이를 때까지 항상 행해야 한다는 『정도삼매경』의 설명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의 중장은 불성사상을 통해 적극적인 실천행의 변화가 갖는 무한한 마음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계행과 보시, 믿음의 실천이라는 실천행을 본업으로 여기고 항상 행동함으로써 자연히 오계에 준하는 행동(삼수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사회 속의 당위는 물론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의 중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왜곡된 자신에게만 맞춰진 생각을 참회와 보시와 계행

56)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24, 1019b), “佛子 法門者 所謂十信心 是一切行本 是故十信心中 一信心有十品信心 為百法明門 復從是百法明心中一心有百心故 為千法明門 復從千法明心中一心有千心 為萬法明門 如是增進至無量明 轉勝進上上法故 為明明法門 百萬阿僧祇功德 一切行盡入此明門。”

을 통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조금씩 넓혀 간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의 중장이라는 변화가 갖는 다음의 행동의 유도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중장이라는 이로움을 넣게 되고, 다음의 마음과 행동을 이어가는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의 실천을 통한 마음의 중장을 유도하기 위해 위경은 계행의 보편적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수계와 지계에 따른 내세관, 지옥관, 천신관을 포함한 상벌을 설명한다. 또한 계의 지법에 얹매이기 보다는 참회를 통해 현실 속에서의 반성과 선의 실천을 불보살의 위신력이라는 감응의 신앙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개선과 자발적인 동기부여는 민중들에게 행동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게 할 것이다. 또한 서서히 몸에 베어드는 교육이 될 것이고, 스스로 올바른 개성의 발현을 이루게 할 것이다.

V. 맷음말

위경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설이 아닌 사람의 망설이 담긴 글인지도 모른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번역경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편파와 스스로의 도태라는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그 수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중국불교가 번역경전만으로는 불충분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경에 대해, 남북조시대 찬술경전으로서 『淨度三昧經』, 『大通方廣經』, 『菩薩瓔珞本業經』 등의 내부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실천행’의 강조라는 민중경전의 측면으로 고찰하고

자하였다. 더 나아가 실천행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한 구명까지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민중에게 필요한 교육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위경이 민중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행위로 강조하는 특징과 실천행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말법시대에 적합한 구복의 인과옹보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결코 보편적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五戒 등의 윤리도덕을 강조한다. 인과옹보의 지옥관, 내세관, 천신관 등이 결부되면서 명확한 상벌의 윤리도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선의 실천을 이루게 한다.

둘째, 기존의 철학적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 실천적이고 자신의 현실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신앙을 설정한다. 사회의 불안정에 대한 현실도피를 현실 속에서의 반성과 실천으로 전환한다.

셋째, 실천행의 강조가 단지 기존 불교계에 대한 비판만을 향한 것 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의 실천에서 오는 마음의 변화를 유도한다. 다시 말해, 戒를 받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佛性에 기반한 마음의 중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위경의 실천행의 강조는 불성을 간직한 민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심오한 철학적 담론 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실천임을 나타낸 표현인 것이다.

위경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첫째로 삶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오계의 실천이 적극적인 선의 실천으로 민중들의 눈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마음과 행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발적인 동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마음과 행의 변화에서 오는 공덕은 그 행의 이로움 때문에 다음의 마음과 행을 이어

가는 씨앗이 될 것이다. 그것을 현세의 부귀와 지옥 등으로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자신의 행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조금씩 자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의미가 인간의 자유로운 개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려는 작용이고, 이를 위해 피교육자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교육의 맥락적인 가르침이라는 일면 속에, 또는 불교의 隨機說法이라는 일면 속에 위경의 범주를 넣어도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위경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약술하면, 먼저 남북조시대와 수·당대의 위경에 맞추어진 현재의 연구를 넘어서서 명·청대의 위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조와 수당대의 찬술경전들이 후대의 고승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위경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 『開元釋教錄』, 『大正藏』 55
- 『高王觀世音經』, 『大正藏』 85
- 『觀世音三昧經』, 牧田諦亮, 『疑經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6
- 『勸善經』, 『大正藏』 85
- 『廣弘明集』, 『大正藏』 52
- 『大通方廣懺悔滅罪莊嚴成佛經』, 『大正藏』 85
- 『妙好寶車經』, 『大正藏』 85
- 『菩薩瓔珞本業經』, 『大正藏』 24
- 『佛說延壽命經』, 『大正藏』 85
- 『三廚經』, 『大正藏』 85
- 『仁王護國般若經疏』, 『大正藏』 35
- 『淨度三昧經』, 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 卷二, 東京: 大東出版社, 1996
- 『清淨法行經』, 牧田諦亮監, 落合俊典編,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 卷二, 東京: 大東出版社, 1996
- 『出三藏記集』, 『大正藏』 55
- 大野法道, 『大乘戒經の研究』, 東京: 理想社, 1963
- 道端良秀, 『中國佛教思想史の研究』, 東京: 平樂寺書店, 1979
- 牧田諦亮, 『疑經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6
- _____監, 落合俊典編,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 卷二, 東京: 大東出版社, 1996

- 勝又俊教, 「大乘佛教の倫理」-大乘戒の中心として-, 講座『佛教思想』第3卷, 東京: 理想社, 1982
- 矢吹慶輝, 『三階教之研究』, 東京: 岩波書店, 1973
- 元永常, 「南北朝時代の疑偽經にあける末法思想の形成」, 『印度學佛教學研究』51, 東京: 印度學佛教學研究學會, 2002
- 直海玄哲, 「疑偽經典から民衆經典へ」,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卷二, 東京: 大東出版社, 1996
- 塚本善隆, 『北朝佛教史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1974

- 김진무, 「중국불교의 위경제작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평론』4, 서울: 불교평론사, 2002
- 모치즈키 신코(望月信亨), 『佛教經典成立의 研究』, 김진열 역, 서울: 불교시대사, 1995
- 사이토 류신(齊藤隆信), 「疑偽經과 그 연구의 意義」,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7집, 익산: 원불교문화연구원, 2007
- 王弼, 『老子指略』, 임채우 옮김, 서울: 한길사, 2005
- 원영, 「삼취정계의 형성과 자서수계」, 『大覺思想』第10集, 서울: 大覺思想研究院, 2007
- 이영석, 『南北朝佛教史』, 서울: 혜안, 2010
- 이자평, 「『菩薩瓊珞本業經』의 菩薩思想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
- 장애순(계환), 「중국찬술의 위경연구」『불교학보』33, 서울: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1996
- 차차석, 『中國의 불교문화』, 서울: 운주사, 2007

- 최연식, 「『금장요집경』의 성격과 연구현황」, 『동아시아 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견』, 서울: 도서출판씨아이알, 2010

Minjung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Buddhist Apocryphal Sutras

—focusing on the apocryphal sutras from the period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Lee, Ja-pyung
Dept. of Buddhist Studies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mphasis on practice in the Buddhist apocryphal sutras(wei-jing, 假經), focusing on the pedagogical aspects of the apocryphal sutras from the period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including *the Samadhi-Sutra of Liberation through Purification*(淨度三昧經), *the sutra of Supreme Penetration Vaipulya- Repentance Redemption-Adornment Enlightenment*(大通方廣懺悔滅罪莊嚴成佛經), and *the sutra of the Original Acts Adorning the Bodhisattvas*(菩薩瓔珞本業經).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apocryphal sutras have functioned as sutras for minjung, or the alienated people of their eras. Som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wei-jing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apocryphal sutras generally put their emphasis on the ethical moralities such as the five precepts, part of the universal norms of Buddhism, while, on the other hand, focusing on

the causal retributions and prayers for blessing that are suitable for people living in the latter days of the Buddhist dharma. Secondly, the apocryphal sutras try to teach a faith that requires practical reflections on the realities of our lives rather than a faith based on philosophical speculations. They also aim to transform escapism caused by social instabilities into practical reflections on realities. Thirdly, the emphasis on practice goes beyond mere criticisms against contemporary Buddhist societies, to the changes of mind and behaviors by continued accumulation of practical acts. In other words, every single act of practicing good deeds and receiving precepts is to mature the mind rooted in the Buddha nature. Therefore, the emphasis on the practical acts of the apocryphal sutras highlights that the primary needs of ordinary people are not profound philosophical arguments but in fact practical acts in their real lives here and now. The apocryphal sutras emphasize the universal ethics and moralities of precepts and acts, and, based on their views of the afterlife, purgatory, and divine beings, explain eventual rewards and punishments according to the precepts. The apocryphal sutras do not strictly insist on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precepts or violating them. They rather try to lead followers, by their repentance and practical reflections in everyday lives, to have a faith in the salvific powers of the Buddhas and Bodhisattvas.

In doing so, apocryphal sutras stress the significance of practical mind and acts here and now, and eventually promote the manifestation of self-nature through continued practices. The pedagogical significance of the apocryphal sutras, first of all, is that they lead us to transform our lives by encouraging ordinary people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actice of good deeds and precepts, to reflect on their own lives, and to improve their status of mind and acts. Secondly, the sutras stimulate voluntary motivations to form a seed of mind and acts by the benefits which result from the merits of the transformation of mind and practice. It is true that, even by alluding to the prosperities and punishments in this life, the apocryphal sutras slowly but steadily help people change their mind and behaviors.

Key Word

Buddhist apocryphal sutras, ordinary people,
practical mind and acts, pedagogy, Buddha nature

▣ 투고일자 2011.7.2 | 심사일자 2011.8.5 | 게재확정일자 2011.8.8

日本天台宗と鎌倉新仏教

蓑輪顕量
東京大学 日本国

はじめに

- 一. 中世の時代の始まり
- 二. 顕密の僧侶と遁世
- 三. 中世の寺僧と遁世門
- 四. 鎌倉新仏教の母胎となった天台本覚思想
- 五. 浄土教の新集団一法然の一門
- 六. 法然の門弟達による展開
- 七. 禅宗の登場
- 八. 日蓮と一遍の集団
- 九. 何故日本天台宗から新仏教を数多く輩出したのか

おわりに

* (付記)本論文は、2010年11月13日(土)に韓国外国语大学(ソウル所在)に行われた2010年仏教学研究会秋季学術大会(主題:日本仏教の起源・土着化・影響)において発表した原稿に加筆、修正を加えたものである。